

# 강진 푸소 체험, 농가소득 향상 견인

### 참여 인원·농가소득 증가...소득면 36% 신장 올해 85개 학교 및 단체 예약 인원 1만여 명 돌파

푸소 체험이 강진군 농가 소득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19일 기준으로 올해 푸소 체험에 5천961명이 다녀갔으며 5억2천8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4천769명, 3억3천300만 원) 대비 이용객 1천155명, 소득 1억9천500만 원이 증가한 결과로 특히 소득 면에서 36%의 신장률을 보였다.

푸소 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시골 농가에서 숙박을 하며 농촌의 여유와 감성을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85개 학교 및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혀오며 사전 예약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푸소

체험을 다녀간 33개 학교 중 17개 학교가 올해도 재계약했으며 수학여행 시즌인 9월과 10월은 예약이 조기에 매진되었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철저한 사전 대비를 위해 군은 지난 2월까지 푸소 운영 농가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안전, 커뮤니케이션 기법, 청소년 심리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9~10월 성수기에 이용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강진 웰에이징 FUSO 산업화 라는 주제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선정돼 70여을 지원받



는다. 이에 푸소 체험 센터 건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푸소 체험을 군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학동 관광과장은 "푸소 체험이 경제적 가치를 넘어 타인과의 소통, 따뜻한 정서의 교류라는 더 큰 가치

를 창출하고 있다"며 "2019년에는 가족, 일반인 및 직장 단위로 체험 대상을 확장에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 신안군, 축제식 새우양식장 배출수 검사

1004선 신안군이 축제식 새우양식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사육수가 인근 해양(갯벌)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불확실한 추측성 논란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내 새우양식장 346개소를 대상으로 배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각 양식장별로 시료를 채취, 수질검사에 필요한 질소 등 주요 4개항목(총질소, 총인, 총유기탄소, 부유물질)에 대해 수질분석기관에 의뢰, 항목별 기준치와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신안군은 수질검사 비용 14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검사와 함께 새우양식 종여기에 맞춰 10월경 또 한차례의 수질검사로 총 2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양식어에게 자료를 직접 공개하고,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유해약품 등이 검출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개선방안 강구)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무안군, '찾아가는 토지행정 서비스' 운영

무안군이 영농기에 중단했던 '찾아가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지난 18일부터 다시 운영했다.

무안군은 오는 8월 30일까지 매주 1회 이상 토지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영농수확시기 9월과 10월에 잠시 중단, 11월과 12월에 집중 운영한다.

군은 현재 20개 마을을 방문해 합병·지목변경 신청, 건물번호판 재교부, 조상방 찾기 신청 등 117건을 접수·처리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안내했다.

실물 점검도 마쳤다. 무안군은 토지이동, 조상방 찾기 등의 민원접수에 공무원 2명, 소유권 이전, 지적재조사 등, 민원상담에 2명, 도로명주소 설명 및 시설물 점검에 2명 등 6명 이상의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1대 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 및 거동이 불편해 군청방문이 어려운 농촌 오지 마을을 위주로 '찾아가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실시해 현장에서 부동산 분야의 각종 민원과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 영암군,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지난 2개월간의 자동차운전면허 교육을 지원하여 17명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

이번 과정에서는 영암경찰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교통안전, 도로교통법규 등 이론 및 필기시험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인당 운전면허 학원비의 50%를 지원하였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탁 기능교육을 통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5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관내 결혼이주 여성 24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교육 후 베트남 12명, 필리핀 3명, 러시아 1명, 스리랑카 1명 등 최종 17명이 약 2개월 만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 결혼이주 여성이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및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완도군, 태풍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총력

완도군은 제5호 태풍 다니스의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를 위해 긴급 복구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완도를 통과한 제5호 태풍 다니스의 피해 조사를 위해 주관 부서 및 읍면을 통해 접수를 받고 현장 점검을 나서고 있다.

특히, 응급복구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 응급 복구를 실시하여 주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

였으며, 예산이 수반된 경우에는 재해 및 재난복구 예비비를 투입해 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완도군 태풍 피해 규모는 22일 현재 공공시설 3종 12건(도로시설 5건, 어항시설 4건, 기타 3건)과 사유시설 2종 5건(주택 4건, 기타 1건)으로 피해 금액 약8천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완도군은 태풍 내습 이전부터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양식시설물 점검 및 도로 시설 점검, 하수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

다. 특히, 태풍이 접근해 오는 20일 0시경에는 만조와 겹쳐 있어 비상 근무 인력을 동원해 해일 및 침수 예방을 위해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는 등 비상 조치를 취하고 현장 비상 대기 체제를 구축해 대비하여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갔다.

완도군 관계자는 "태풍 대비 안전사고 점검을 사전적으로 펼친 결과 해상 양식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많지 않았으며, 도로 위험구간에 대한 통제도 잘 이뤄져 큰 피해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 진도군, 표고목 부산물 재활용 1석2조

### 톱밥·우드칩 생산 3200만원 세외수입 올려



진도군이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난 뒤 쓸모없는 부산물에 대해 파쇄기로 3~4cm 크기의 나무 조각인 '우드칩'을 생산·판매하는 등 재활용하고 있다.

군은 올해 목재 파쇄장의 톱밥과 우

드칩 1만6,265포(40kg/1포)를 생산, 1포당 2천원의 가격으로 판매해 3,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군은 우드칩으로 생산 지역 농가에 판매해 세외수입은 물론 농가들에게는 퇴비로 활용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표고재배 농가들의 부산물 폐기비용을 절감하는 물론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표고 재배지 현장에서 직접 목재 파쇄기를 설치해 노지와 하우스 내 잡나무 표고목을 운반한 후 파쇄기에 투입, 우드칩을 생산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우드칩 퇴비는 다른 유기질 퇴비에 비해 리그닌의 함량이 높고 토양속으로 분해 할 때 많은 토양유익균을 생산해 밭집퇴비에 비해 3배가량 높아 토양개량에 효과적이다.

또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토양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겨울철 지표면의 동결을 막고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주는 등 수목관리에 효율적이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산림경영담당 관계자는 "우드칩 재활용으로 환경 친화적 녹지 관리뿐만 아니라 부산물 처리비 등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우드칩 생산을 확대해 매년 반복되는 표고 부산물 처리를 해결하고 세외수입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